

▲ **클럽정보** 내정보

빛나는그림

- 클럽장 |
- 개설일 | 2007.11.16 [소개]
- 회원수 | 27 [주소록]

클럽초대

클럽 글쓰기

전체글보기: 자유

[권한보기](#)

글쓰기

SKKU Webzine 에 나온 여성현실제 기사 주소복사

2008.06.04 13:35

조회 13

- 전체글보기(493)
- 전체사진보기(223)
- 사진 슬라이드 보기

프리톡

먼저 놀고

- 얼굴들
- 첫만남
- 자유
- 시간표
- 수다
- 익명
- 낙서
- 흠뻑람

일해요

- 회의
- 건의 사항
- 반지
- 2009 여헌제
- 2009여헌제 메모
- 2009 영화제
- 2009 영화제 메모
- 2009 영화제 포스터
- 2010 봄 영화제
- + 여성주의 도서전
- 2010 봄 영화제 메모



지난 5월28일, 여성현실제 '우리는 왜 페미니즘을 잊어가는가?'가 개최되었다.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반>과 사회대 여성주의 네트워크 <살림>,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정정현> 이렇게 세 단체가 화합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학우들에게 여성의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전체적인 행사는 금잔디에 설치된 3개의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부스에는 현수막 쓰기과 티셔츠 그리기가 준비되었는데, 부스에 준비된 셔츠와 현수막은 기존의 의미를 넘어서 여학우들의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여학우들은 전에는 발언할 기회가 없거나 부끄러워서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현수막과 티셔츠 위에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학우들의 얼굴에서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한편에는 트럼펫, 공, 베드민턴 등 각종 놀이기구가 준비되었다. 여학우들에게 여성스러움을 강요하는 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나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놀이기구를 준비하였다는 이야기를 행사담당자로 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부스에서는 여성노동의 현실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3,4학년 여학우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여학우들이 학내에서 성차별적인 언어 때문에 품었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뜻대도 마련되어 여학우들의 관심을 끌었다.

세 번째 부스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현'을 소개하고 있었다. '정정현'은 성균관대 내에서 197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발행되었던 여성주의 교지이다. '정정현' 편집위원 최 학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정현'에 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1. 《정정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A1. '정정현'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총 32호가 발행된 여성주의 교지입니다. 처음 발행되고 처음 5년 동안은 단순히 학내 여성 학생잡지 역할만 하다가 80년대 들어서 비로서 여성주의교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정정현'은 사회문제와 여성문제를 결합시키는 내용을 주로 담았죠. 90년대에 들어서 사회 흐름에 맞추어 여성 문제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문제까지 영역을 확대 했지요.

Q2. 《정정현》발행이 중단된 이유?

A2. 직접적인 원인은 '정정현' 편집 인력의 부족이었어요. 하지만 발행 중지의 가장 큰 이유는 여성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사회운동에 대한 열의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여성문제에 대해 등을 돌렸어요.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이 곧 2003년 발행된 32호 '정정현'을 마지막으로 만든 셈이지요.

- 2010 봄 영화제 메모
- 2010 봄 영화 이미지
- 2011 봄 강연회
- 2011 봄 강연회 메모
- 2011 봄 강연회 이미지
- 기타자료

세미나도!

- 세미나
- 세미나 자료
- 세미나 후일담

선거도 해야지

- 선거
- 선거 메모
- 선거 그림

보관

- 학내 성폭력 사례접수
- 사건 상황

이 글은 2003년 발행된 32호 '정정현'을 마지막으로 만든 셈이지요.

Q3. 현재 《정정현》을 재발행하기 위한 노력?

A3. 학교 측에서도 지원의사를 받았고 저희 편집위원들도 '정정현'발행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와 관심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관심을 이끌기 위해 학내 다른 여성단체들과 학술활동은 진행하고 있어요. 총여학생회 대책위원회<반>과 두 차례의 여성주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번 대동제에서는 사회대 여성주의 네트워크<살림>과 광장사업 '숲을 보자'도 진행하였어요. '정정현'이 재발행 된다고 해도 페미니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적다면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Q4.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A4. '정정현'은 1971년에 시작되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 할 뿐만 아니라 대학 여성 언론의 시초라고 할 만큼 의미가 있어요. '정정현'은 학내에서 여학우들이 겪는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의 인식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성균관대 학생들이 '정정현'에 많은 관심을 갖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관심이 '정정현' 재발행을 앞당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정현' 편집위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1,2학년 학생들은 연락주세요.(《정정현》편집위원)



이번에 개최된 여성현실제에서는 29일 부스행사에 이어 30일까지 '페너지업 수다회',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를 통해서 학내의 여성단체들이 여학우들의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모두가 다니고 싶은 즐거운 성균관 대학교를 만들어 가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취재 | 성균웍진 차 학생기자

성균웍진 김 학생기자